

“의사들 병원 떠나면 어떡하나”...환자도 보호자도 발동동

광주 종합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우려 커지는 의료현장

전남대병원 사직 개별선택에 맞기고 조선대병원 94% 단체행동 찬성 일부 “벌써 병원 이송 통보”...“정부·의료계 한 발 물러나 파국 막아야”

광주지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환자와 가족들이 진료 차질과 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는 각각 320명, 142명으로, 이들의 공백은 병원의 손발이 마비되는 것과 같다.

전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직·근무 지속에 대한 투표 및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사직 여부를 ‘개별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 탓에 개별적 선택에 맞기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지만,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 한 점 등을 보면 단체 사직의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대 비대위 측은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으면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교수와 전임의의 업무 부담이 늘어 날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수인계 및 당직표 조정 등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 사직하도록 공지를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자체 진행한 조사에서 94%의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 이미 내과 전공의 7명이 개인적 사유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이 현실화하고 있다.

18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만난 환자와 가족은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교통사고로 13일 전남대 병원에 입원한 윤운자(여·65)씨는 ‘환자끼리도 의대증원에 대한 이야기는 쉬쉬할만큼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문제’라고 귀띔했다.

윤씨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언제 퇴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단체로 사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5일 전남대 병원에 입원한 김동수(63)씨

도 “의사에게 1순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어야 하는데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면 환자는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 되물었다.

의료공백이 생기면 충실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환자 가족들도 있었다.

남동생이 입원해서 목포에서 올라와 병간호 중이라는 최모(여·59)씨는 “진료공백이 발생해 숙련이 될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 것 아니냐”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일부 환자 가족들은 대학병원이 벌써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고려해 병원이송을 권유하는 한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김모(77)씨는 “병원측이 환자와 보호자 상의도 없이 병원 이전을 통보했다”면서 “아내가 염증 치료를 받고 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인데 병원에서 이반사태 때 문인지 진료가 불가능하니 광주 중형병원으로 옮기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대치에서 한 발 물러나 파국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족 면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김영렬(43)씨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병원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돼 시민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의사 수를 늘린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원 이후 교육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면회차 병원을 찾은 조방현(60)씨는 “소아과와 응급실 등 필수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건 의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부가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 환자 보호자인 최은정(여·49)씨는 “의사 수를 늘려도 지급처럼 인기 있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으로 대부분 옮겨가고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진출하지 않을 것 같다. 단 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지역의 모든 의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전국 상인들 총장로 플리마켓 18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의 한 민영주차장에서 전국 플리마켓 상인들이 참여한 장터가 열렸다. 장터는 총장로 상인들 이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전국 상인들을 모집해 열었으며, 지난 16일부터 3일 동안 운영됐다. /나영주 기자 mjna@

다가구주택 수익원대 전세사기 50대 주부 3년6월 실형

광주 광산구 임차인 5명 피해

광주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최근 사기·강제집행 면탈·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여·5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9)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21~2022년 5명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총 5억 76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 B씨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명

의수탁을 요구한 A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명의 를 빌려준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2014년 광주시 광산구 한 다가구주택(지상 4층)을 매수했다. 이후 지인과 딸의 명의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A씨가 실제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다가구 주택 3층 안 집 에 대해 전세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1억 8000만원으로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2억 2000만원으로 올려 계약을 작성하면 보증금상 당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며 “보증금 대출이자를 대납해주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면 보증금을 제 때 반환해주겠다”고 말해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대출채무를 연체했고 수입에 비해 과도한 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을 부담했으며, 신용불량으로 압류가 우려되는 채무초과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속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허위양도해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시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 진술을 해온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수 채용절차 불공정”

대법 조선대 3000만원 배상 판결

조선대무용과 전임교수 채용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김상환)는 지난 15일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

는 절차다.

조선대는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아닌 책임을 지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항소심 결과가 유지된 것이다.

A씨는 2022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 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3단계 심사 중 2단계 심사에서 학과장 B씨가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심사대상자 C씨(임용자)를 지목해 ‘첫 번째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심사위원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과 ‘20분 공개강의와 10분 질의응답’으로 심사절차가 공고됐음에도 당일 임의로 공개강의 30분으로 변경한 점 등을 들어 부당채용을 주장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채용의 불공정을 규탄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책임을 요구했지만 조선대는 묵묵부답하며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다”면서 “조선대는 대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고, 피해자에게 상자를 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대책을 마련하리”고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광주 고시텔서 60대 기초수급자 숨진채 발견

광주시 북구의 한 고시텔에서 60대 기초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오전 11시 30분께 북구 고시텔에서 A(67)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고시텔 운영자는 지난 16일 청소를 하던 중 문이 3cm 가량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고 17일에도 문이 닫혀 있지 않아 방안으로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2000년부터 북구에서 기초수급지원을 받아온 A씨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8일 이 고시텔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4시간 이내에 타지역에 있는 형과 통화한 이력을 토대로 숨진 지 하루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 Card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